

돌아온 캠핑의 계절… 고급 미니밴 인기몰이

기아차 카니발 4월 9500대 판매
7인승 리무진 모델 배 이상 늘어
수입 미니밴 판매도 작년비 36%

본격적인 캠핑의 계절이 돌아오면서 고급 미니밴이 인기를 끌고 있다. 9인승과 11인승보다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안락한 실내 공간 등을 갖춘 7~8인승 미니밴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기아차의 카니발은 4월 한 달간 9500대가 계약됐으며 이 가운데 7인승 모델인 카니발 리무진은 1800대가 계약됐다. 7인승의 계약 비중은 전체의 19%로, 3월의 9% 보다 배 이상 늘었다. 카니발 구입 고객 5명 중 1명이 7인승 모델을 선택한다는 의미다. 반면 일반형인 9인승의 비중은 69%에서 63%로, 저가형인 11인승은 14%에서 9%로 감소했다.



기아차 카니발 7인승 리무진의 실내 모습.

기아차는 3월 말 2015년형 카니발을 시판하면서 기존의 9인·11인승 이외에 7인승 리무진 모델을 국내에 처음 출시했다.

그동안 9인승 이상 차량만 내놓은 것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면제되고 6인 이상 탈 경우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편안한 승차감을 추구하는 가족 단위 고객과 VIP 의전 용 등으로 미니밴을 찾는 수요층이 넓어지면서 7인승 모델도 추가했다. 카니발 7인승은 9인·11인승 모델보다 실내를 한층 고급스럽게 꾸몄고 시트 배열을 4열에서 3열로 줄여 더욱 넓은 탑승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2열 좌석에는 ‘VIP 라운지 시트’를 적용했다. 비행기 좌석처럼 헤드레스트의 좌우를 탑승자의 편의에 따라 30도 각도로 조절할 수 있는 ‘윙 아웃 헤드레스트’를 장착했고 다리받침과 팔 지지대(암레스트)도 설치했다.

이에 따라 법인 등에서 ‘사장님 차’로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인승 카니발의 인기에 힘입어 4월 카니발의 판매량도 증가했다. 기아차 카니발은 3월 5100대에서 4월 5622대로 전월보다 10% 늘었다.

기아차 관계자는 “7인승이 출시되면 9인승과 11인승의 수요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지면서 전체 판매량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산차에 밀려 큰 인기를 끌지 못했던 수입 미니밴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 수입 미니밴인 도요타 시에나와 혼다 오딧세이, 시트로엥 그랜드 C4 피카소, 크라이슬러 그랜드 보이저 등 4개 차종의 올해 1~4월 판매량은 47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44대보다 36%가량 증가했다. 혼다코리아 관계자는 “5인 이상 가족의 경우 쾌적한 공간을 갖춘 7인승 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며 “야외활동뿐만 아니라 업무용 차량으로도 활용도가 높아 올해 들어 판매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쉐보레 볼트, 전기차나 PHEV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내년 국내출시 앞두고 보조금 논란



내연기관 탑재된 충전식 하이브리드…GM “보조금 지금 당면”

“쉐보레 볼트는 스파크EV와 차이가 없으므로 같은 수준의 보조금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세르지오 호사 한국GM 사장이 지난달 기자 회견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인 쉐보레 볼트를 내년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고 밝히면서 언급한 말이다.

순수 전기차인 스파크EV처럼 볼트 구매자에게도 같은 수준의 정부 보조금 지급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현재 정부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비싼 ‘친환경’ 전기차 구매자에게 1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각 지자체도 최대 900만원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볼트는 구조상 전기모터와 배터리, 내연기관이 함께 탑재된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순수 전기차 취급을 받으려면 내연기관이 장착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GM 측은 얘기는 다르다. 볼트는 주행거리 연장 전기차(EREV, Extended Range Electric Vehicle)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배터리 주행거리가 30~50km인 일반형인 PHEV와 달리, EREV인 볼트는 배터리를 80km까지 갈 수 있어서 전기차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전기모터가 주동력기관이고 내연기관은 비상 시 등에 쓰이는 ‘보조수단’이라는 설명이다.

전기모드의 주행거리는 순수 전기차와 비교해서도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보조기관이

달려 있어서 더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GM 측은 말한다. 실제로 볼트의 경우 운전자 90%가 순수 전기모드로만 활용한다는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볼트 구매자에게는 전기차와 똑같이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미국처럼 배터리 용량에 따라 친환경차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GM 측은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GM 측에서 볼트와 관련한 공식 인증 등을 신청한 단계가 아니어서 구체적인 검토를 해보지 않았다”며 “정식 신청이 들어오면 볼트의 세부사항 등 요건을 살펴 보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전기차로 볼 것인지, PHEV로 볼 것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트가 국내에서 전기차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 액수는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PHEV에 대해 500만~6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순수 전기차는 기아차의 쏘울EV, 르노삼성차의 SM3ZE, 한국GM의 스파크EV, BMW의 i3 등이 국내에 출시됐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량은 올 하반기에 현대차의 쏘나타 PHEV와 아우디 ‘A3 스포트백 e-트론’이, 폴크스바겐 ‘골프 GTE’는 내년 초에 각각 국내 출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기아차 경차 판매 16년만에 100만대 돌파

기아차가 국내 시장에서 판매한 경차 대수가 100만대를 넘어섰다. 1999년 비스토를 출시한 이래 16년 만이다.

지난 31일 기아차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사이에 팔린 기아차 경차는 모두 3만7245대로 집계됐다. 모닝이 2만8661대, 레이는 8584대가 각각 팔렸다.

이에 따라 기아차 경차의 누적 판매는 4월 말 기준 100만1489대를 기록했다. 기아차는 1999년 비스토, 2004년 1세대 모닝에 이어 2011년 2세대 모닝과 레이 등 총 4개 차종의 경차를 출시했다.

비스토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8만6260대가 팔렸고 1세대 모닝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37만8060대가 판매됐다. 2세대 모닝과 레이는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각각 42만3053대와 11만4천116대가 판매됐

으며 지금도 소비자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

기아차 경차의 판매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연간 2만여대 수준이었으나 2008년에는 미국발 세계 경제 위기를 맞아 8만4177대로 뛰었다. 2009년에는 연간 판매 10만대를 넘어섰으며 2세대 모닝과 레이가 출시된 2011년 이후로는 매년 12만대 이상 팔리고 있다.

특히 2011년 출시된 2세대 모닝은 매년 9만대 이상 팔리는 등 4년여 만에 40만대 판매 고지를 돌파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현대차 아반떼에 이어 한국 시장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리기도 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모닝은 실속있는 상품성과 세련된 스타일로 고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며 “경차 모닝의 판매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현대·기아차 4월 中자동차 판매 GM 제치고 9개월만에 2위 탈환

현대·기아자동차가 지난달 중국 시장에서 GM을 제치고 자동차 판매순위 2위에 올라섰다.

최근 중국 내 자동차 판매 기업들의 모임인 ‘승용차 연석회의’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4월 중국 시장에서 전년 대비 2.5% 늘어난 14만6294대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차는 전년 대비 0.8% 감소한 9만288대를, 기아차는 8.4% 증가한 5만6006대를 각각 팔았다.

이로써 현대·기아차는 13만8795대를 판매한 GM을 제치고 폴크스바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시장점유율은 10.0%를 기록했다.

현대·기아차가 중국에서 2위 자리를 탈환한 것은 9개월만이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7월 12만5191대를 팔아 GM(12만3830대)을 누르고 2위에 올랐다가 다음 달에 다시 3위로 밀려났었다.

/임동률기자 exian@



자동차, 이것이 궁금해요

승용차 30kg 짐 적재땐 연료 4~5% 손실

Q) 트렁크 짐이 정말 연비에 많은 영향을 미치나요?

A) 그렇습니다. 차량의 무게는 연비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승용차량 기준으로 30kg의 짐을 적재하고 운행시에는 4~5% 가량 연료가 더 소모됩니다. 따라서 불필

요한 짐이나 골프기구, 낚시용품 등 무거운 레저용 장비를 귀찮다고 트렁크에 넣고 다니는 것은 연비에 큰 손실입니다. 같은 이유로 연료 주유도 한번에 가득 주유하는 것보다 반 정도만 주유하고 운행하는 것이 연비에 도움이 됩니다.

〈기아차 광주서비스 센터 제공〉

광주일보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광주선불폰·중고폰

북구 중흥동 376-7 동부교육청 건너편
신용불량, 통신연체, 무조건 개통 가능
선불 1만 충전시 2만원까지 충전+유선카드 무료
☎010-3070-8309 카톡 conta0206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전수사백마장군

북구 중흥동 800-28 동부교육청 일방로
인생상담, 병점, 사주, 궁합, 부적
영으로 봅니다
대표 허길배 ☎010-2828-2008

광주천가꾸기협의회

수기동 명성애시장 앞
여성 취미교실, 서양화, 수채화 무료
초보자 환영
☎011-602-2883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광주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동·서양화 매매 및 무료감정
고급표구 제작판매
대표 박종환 ☎062)232-4784

아워홈테크

북구 우산동 617-10 문화중학교 담도로
한샘ik제휴점 아파트, 주택, 리모델링
abs도어 연동문 씽크대 불박이장
대표 김창두 ☎010-6635-7224

27번가

동구 중앙로 196번길 27 (구)동구청 뒤
훈연비베뉴, 기계맥주
조용히 즐길 수 있는 쉼터
☎062)223-2727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그린이용원

북구 양산동 오리공영이 뒤
대표 성옥희 ☎010-3225-2735

오리백년두암직영점

북구 두암동 에덴병원 건너편
오리한방, 백숙, 오리생고기, 주물럭,
오리웃닭, 오리 장어탕
☎062)401-5253

토담

광산구 비아소방서와 중흥파크사이
병어조림, 갈치조림, 아구찜, 흥어찜
회무침 전문(계절별)
대표 김광수 ☎062)954-1333

초대화랑

동구 공동 54-2 (중앙로 196번길 15-16)
예술의거리 중앙초교사거리에서
카톨릭센터쪽 30M 이전 확장개업
대표 임해택 ☎010-2681-3113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다나베음므

동구 남동 169-4 (충장로 1가입구 민속촌 옆)
호남 최고 맞춤 정장
결혼 예복전문
대표 김도경 ☎062)224-4262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광주척추교정원

광주 동구 개림동 마시호 건너편 2층
카이로프랙틱, 신경질환, 목, 허리디스크
협착증, 시지관절, 손발저림, 전신경락
☎010-8827-7799

고전방

동구 금동 34-4 (중양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똥이레

동구 대의동 10-1
바다장어, 꾸꾸미, 봉장어, 사브사브,
돌관복음, 소금구이, 양념구이, 계절떡국
대표 윤영희 ☎062)234-7949

일등모바일

동구 금남로 2가 7-4
(구)동구청 1층
핸드폰·악세사리 도매 전문점
☎010-4655-9689

송하한정식

동구 금남로 2가 10번지
청국장, 가마솥육개장
한정식, 백반전문
☎062)225-9278

놀부부대찌개문화전당점

동구 광산동 56-1 (번지유리상실원)
부대찌개, 찌개구이
점장 최은진 ☎062)222-9290